



미 증시, 시장금리 하락,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3 일(수) 미국 증시는 부진한 8월 제조업 PMI로 인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다우 +0.54%, S&P500 +1.1%, 나스닥 +1.59%)

미국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47.0(예상 49.3, 전월 49.0), 서비스 PMI 51.0(예상 52.3, 전월 52.3) 기록하며 부진. 특히 미국의 성장을 견인해온 소매, 의료, 숙박 등 서비스업이 부진했다는 점이 타격이 컸음. 집계측은 "8월 기업 활동이 거의 정체되면서 3 분기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 또한 2 분기에는 서비스 부문이 성장 가속화를 주도했지만 공장 생산량이 추가로 감소하면서 그 효과가 약해졌다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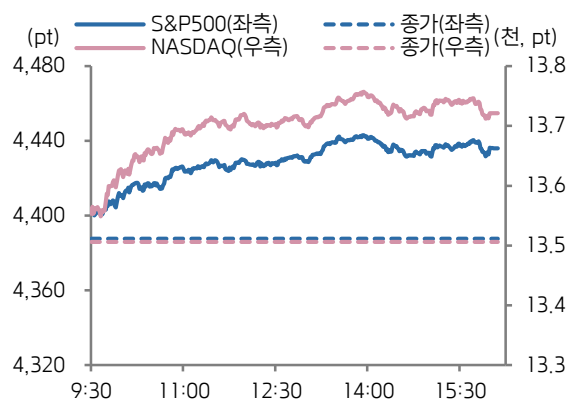
8월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43.7(예상 42.7, 전월 42.7), 서비스업 PMI는 48.3(예상 50.5, 전월 50.9) 기록하며 부진. 특히 서비스업 PMI는 생산지수가 하락하며 올해 처음으로 50을 하회했으며 독일 제조업 PMI가 39.1(예상 38.8, 전월 38.8)로 위축 국면 지속. 이에 따라 ECB가 다음달 회의에서 금리를 3.75%로 유지하면서 동결할 가능성 제기

지난주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 금리는 7.16%에서 7.31%로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0% 감소. 집계측은 "미국경제가 회복력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올랐다고 언급.

7월 신규주택 매매는 MOM 4.4%(예상 0.9%, 전월 -2.8%)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 기존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및 20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높아진 모기지 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구매자들이 비슷한 금액의 기존주택보다 신규주택을 찾는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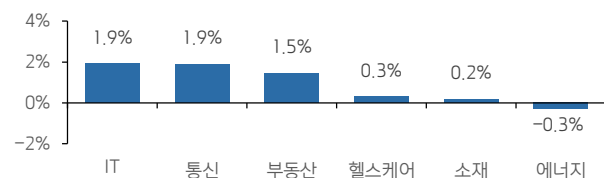
IT(+1.9%), 통신(+1.9%), 부동산(+1.5%) 업종은 강세, 에너지(-0.3%), 소재(+0.2%), 헬스케어(+0.3%) 업종은 약세. 스포츠 소매업체 풋 락커(-28.28%)는 실적발표에서 소비자들의 지출 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함께 올해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배당금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하며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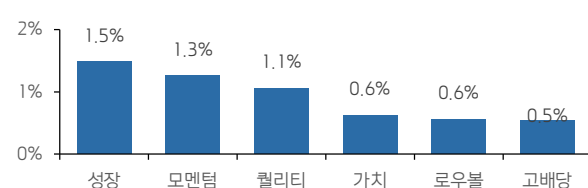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05.50	-0.41%	USD/KRW	1,339.69	+0.31%
코스피 200	329.15	-0.17%	달러 지수	103.34	-0.21%
코스닥	882.87	-1.17%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422.16	-2.17%	USD/CNH	7.29	+0%
S&P500	4,436.01	+1.1%	USD/JPY	144.80	-0.03%
NASDAQ	13,721.03	+1.59%	채권시장		
다우	34,472.98	+0.54%	국고채 3년	3.770	-2.8bp
VIX	15.98	-5.83%	국고채 10년	3.920	-6.4bp
러셀 2000	1,870.03	+1.04%	미국 국채 2년	4.967	-7.9bp
필라. 반도체	3,602.01	+2.11%	미국 국채 10년	4.192	-13.2bp
다우 운송	15,767.60	+1.13%	미국 국채 30년	4.270	-13.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66.67	+0.15%	WTI	78.89	-0.94%
MSCI 전세계 지수	675.46	+0.91%	브렌트유	83.02	-1.2%
MSCI DM 지수	2,937.70	+0.98%	금	1948.1	+1.15%
MSCI EM 지수	970.20	+0.36%	은	24.39	+4.02%
MSCI 한국 ETF	61.55	+1.27%	구리	380.85	+1.3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5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5.9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 국채 10 년물 금리 하락 2.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및 시간외 8%대 급등 영향 3. 위안화, 원/달러 환율 흐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증시 상승을 견인한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보다는 미 국채 10 년물 금리가 최고점에서 하락한 요인이 크다고 판단.

미국 8 월 제조업 PMI 부진에 이어 미국의 성장을 견인해온 소매, 의료, 숙박 등 서비스업 PMI 의 부진이 타격. 하반기로 갈수록 초과저축 감소에 따른 소비여력 위축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스스포팅굿즈(-0.34%)에 이어 실적부진을 발표한 또다른 스포츠용품 업체인 풋락커(-28.28%) 역시 소비자들의 지출 둔화를 언급.

물가 관련해서는 클리블랜드 연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임금 상승률이 2025 년까지 연간 3%대까지 감소할 것이며 이는 연준의 2% 목표에 부합하는 수치라고 분석. 팬데믹 기간 동안 나타난 임금 상승률의 급등은 노동시장의 불균형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역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

추가로 미국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비농업 고용자수를 30.6 만명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 이에 따라 2022 년 3 월부터 2023 년 3 월까지 신규 고용이 당초 보고된 수치보다 월간 신규 고용 평균은 기존 33.7만명에서 31.2만명으로 감소. 임금상승률의 추가 하락 및 타이트한 고용시장의 해소는 물가 하향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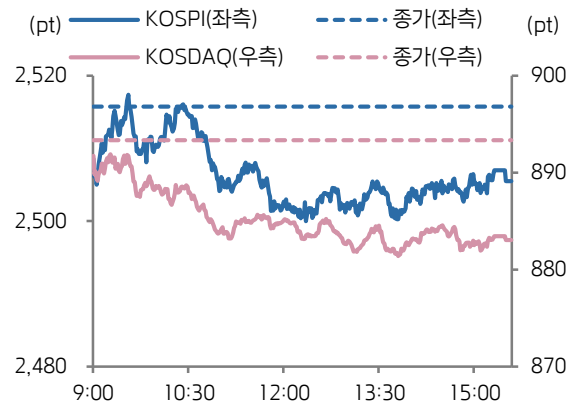
23 일(수) 국내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및 잭슨홀 미팅 경계심리로 위험선호심리가 위축되며 2 일만에 하락 (KOSPI - 0.41%, KOSDAQ -1.17%)

장초반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업종은 외국인 순매도 확대에 하락 전환, 이차전지 업종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주도주 없이 보험, 음식료, 전기가스 등 방어주가 강세. 그 외에 후쿠시마 오염수, 초전도체, 양자컴퓨터 등 뉴스에 민감한 테마 장세 이어지며 거래대금은 증가.

금일에는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으로 자금이 쏠릴 것으로 예상.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시간외에서 8%대 급등 중. 2 분기 매출 135.1 억달러(예상 111.9 억달러), 주당 순이익 2.7 달러 (예상 2.09 달러)로 높았던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 서프라이즈 기록. 더 나아가 3 분기 매출 160 억달러(예상 126 억달러)로 제시하며 예상치 대폭 상회하는 가이드스까지 제시하며 상승 시나리오에 부합. 특히 생성형 AI 칩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센터 매출은 103.2 억 달러 (예상 80.3 억달러)로 YOY 17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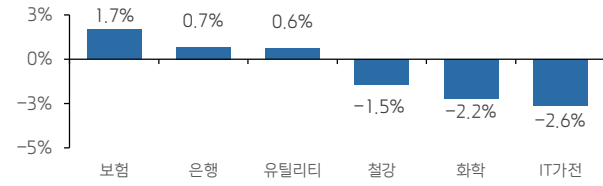
만약 반도체 주도주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상태로 잭슨홀 미팅 결과까지 확인한 이후에 방향성이 나타날 것.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는 9 월 추가인상은 연준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소매판매 지표 서프라이즈와는 별개로 실물 경기 분위기를 보여주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여력 감소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 따라서 반도체 업종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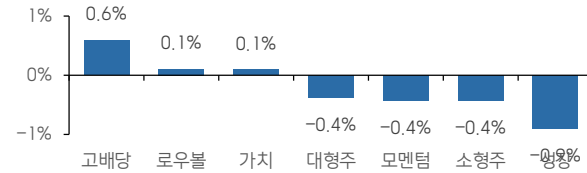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